
커뮤니티 케어 기반 일본의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우수사례 시찰 및 국내 적용방안 모색

2018. 11. 14.

□ 출장목적

- 커뮤니티 케어 기반 일본의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우수사례 시찰 및 국내 적용방안 모색

□ 과제명

- 커뮤니티케어기반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회서비스 RD기획연구

□ 출장기간

- 2018.10.15.(월)~2018.10.18.(목) (3박 4일)

□ 출장지역 및 방문기관

- 일본 치바현, 도쿄
 - (협동조합)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
 - (공익재단법인) 도쿄도복지보건재단
 - 닛세이기초연구소
 - 시민복지단체 협의회
 - 와다훗또카페
 - (사회복지법인) 분쿄쿠 사회복지협의회

□ 출장자

- 임성은 부연구위원, 임정미 부연구위원, 김진희 연구원

□ 일정요약

일자	국가/지역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논의사항, 습득사항
2018.10.15	일본/나리타 (치바현)	(협동조합)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	shimada tomoko	- 24시간 돌봄연계 시스템 구축 방법(야간방문순회), 재택의료 - 요양연계방법, 취로지원상담 등에 관한 회의 및 견학
2018.10.16	일본/도쿄	(공익재단법인) 도쿄도복지보건 재단	tomura akira	-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방법과 ICT를 활용한 차세대 돌봄기기, 복지용구 활 용법에 관한 회의 및 견학
2018.10.16	일본/도쿄	넷세이기초연구 소	김명중 준주임연구원	- 일본 지역포괄케어 최근 이슈, 시스템 추진 효과, 관련 서비 스 및 프로그램 자문
2018.10.16	일본/도쿄	시민복지단체 협의회	shimada, isono	- 시민복지단체 연계방법과 각 서비스 특징
2018.10.17	일본/도쿄	와다훗또카페	shimada, isono, 방진아 (일본사회 사업대학)	- 커뮤니티식당, 지역주민 상호 부조 서비스
2018.10.17	일본/도쿄	(사회복지법인) 분쿄쿠 사회복지협의회	hiraishi, nemoto, 방진아 (일본사회 사업대학)	- 커뮤니케이션 실천사례(생활지 원, 권리옹호 등)에 관한 회의 및 견학

1. 협동조합 생활클럽 바람의 마을

○ 생활클럽이란

- 1965년 도쿄에서 여성 선구자들이 임의조직(봉사협회)으로 '생활클럽' 활동을 시작
- 스스로의 생활방식을 바꿈으로써 산업중심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바로잡고,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을 활동목적으로 삼음.
- 이 운동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68년 민주적 운영과 경영을 양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소비생활 협동조합을 설립
- 그 후 생산-유통-소비-폐기, 환경, 복지, 정치분야에 이르기까지 '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자치(自治)한다'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해 왔고, 현재 21개 도도부현(都道府縣)에 32개의 생활클럽(생활클럽연합회의 회원단협)이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음.

○ 지역별 자주적 관리 및 운영

- 생활클럽의 운동 및 사업은 도도부현(都道府縣)별로 독립된 생활협동조합(단협)이 자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.
- 또한 지역별 조합원의 자치조직이 있어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중임.
- 32개의 단협은 소비재 공동개발과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 기구로서 생활클럽연합회를 구성하고 수주, 발주, 물류시스템, IT시스템 운용 등을 위임하고 있음.
- 연합회는 회원단협이 참가하는 총회, 이사회 등이 운영함.

○ 시설 및 서비스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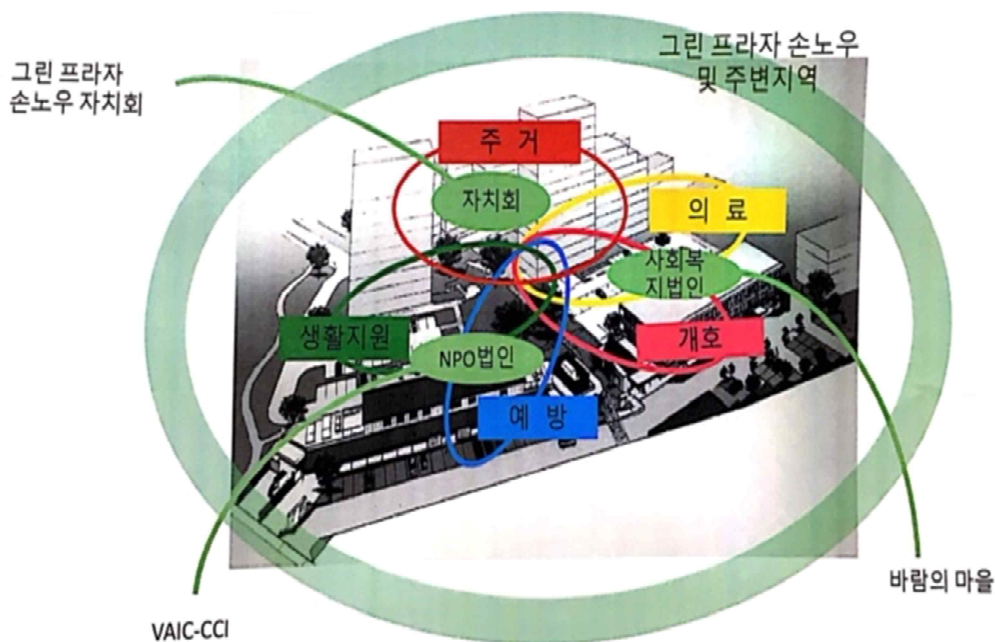
- 주거 기존에 노후된 아파트를 개조하여 사용, 남은 토지를 지역 주민 활동거점으로 활용함.
- 개조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동하기가 어렵고 이웃간의

관계형성이 어려웠음.

- 생협 마켓과 진료소가 있음. 지역활동 공간과 커뮤니티 연구소가 같이 있음.
- 요양시설에는 일시 단기입소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 서비스도 제공함.

○ 바람의 마을 커뮤니티 케어 지역체제

- 욕구에 대응하여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, 생활상의 안전, 안심,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나 개호 뿐만 아니라,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장(일상생활 권역)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체제



- 보편적 컨셉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.
- 회원제로 운영되며 지역복지사업이나 환경문제 관련 활동, 아동학대 예방 운동 등을 하고 있음.
- 노인보호시설은 개호 3단계 이상은 입소가 어렵고 대기자가 많은 상황임. 단기보호는 2주 동안 이용 가능하며(법적기준에 따름) 계속 연장 가능함.

-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링도 함께 수행함.
- 아동식당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요리를 하면서 지역활동에 대한 논의도 하고, 강의를 신청해서 같이 듣기도 함.
- 최근에는 빈곤가정 아동이 늘어나고 있음. 특히 맞벌이 부부의 아동의 경우 결식아동이 많음.
- 한부모와 독거노인이 친구가 되게끔 연계하고 치바대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함.

2. 도쿄도복지보건재단

○ 일본의 개호 관련 최근 이슈

- 2025년 문제란 베이비붐세대가 후기고령자(75세 이상)에 도달하는 것에 의해, 개호, 의료 등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
- 현재도 부족한 개호노동력이 장래에는 더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.
- 의료시설은 노동이 과혹하여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, 간호직원 중에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71만 명이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.
- 개호부문의 경우에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자가 228만 명에 달하고 있음.
- 서비스 영역별(보건-복지), 서비스주체별(공공-민간), 대상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간 격차문제, 분절화,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

○ 시도,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사전 예방을 목표로 개호예방매니지먼트 서비스 도입

○ 개호요양사 대상 교육 실시

- 종합상담지원 업무 연수, 고령자 대상 욕구조사와 사례관리 교육, 노인학대(폭력, 성학대, 방임) 대응 연수, 도쿄도의 개호정책 제도 및 계획 교육 등

- 개호인력 부족으로 개호인력 지원에 초점을 둔 복지용구 개발
 - 개호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설치형 리프트, 개호대상자 목욕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욕실 설치형 리프트, 복지용구 등
 - 복약지도 로봇 등 IoT를 결합한 복지용구 개발



3. 시민복지단체전국협의회

- 지역거주지원 모델 사업설명
 - 대상지역: 도쿄 스기나미쿠, 나까노구, 신주쿠구에 거주지원모델 실시
 - 지역특성: 주택가, 상점가를 중심으로한 도시형 지역으로 생활이 빈곤한 노인의 수가 많음. 도시의 경우 비싼 집값 때문에 독거노인의 주거공간의 확보가 어려움(보증인 확보의 어려움), 신주쿠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가 많음.
 - 사업대상자: 저소득 노인, 저소득 장애인, 저소득 한부모가정,

은둔형 외톨이, 그 외

- 사업내용: 빈집을 이용하여 저소득자의 주거공간 지원(쉐어하우스 운영), 커뮤니티 식당 운영, 저소득자 생활상담 및 취업상담, 지역활동 매칭
- 빈집 리모델링(도쿄도 보조금과 국토교통부 주거지원 보조금을 매칭)→주거공간 확보→지역적 특성에 따라 쉐어하우스 운영(외국인거주자와 노인의 공동생활 지원, 청년이 독거노인에게 안심케어를 제공하는 쉐어하우스 등)

3. 넷세이기초연구소

○ 지역거주지원 모델 사업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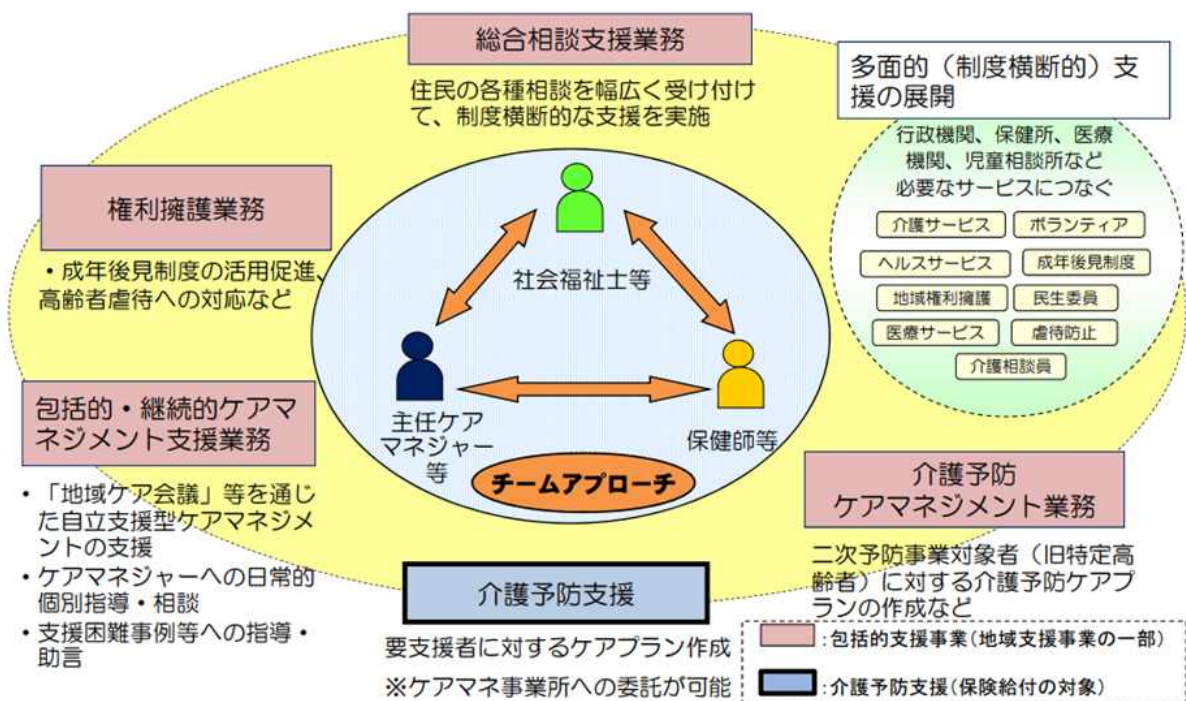
-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요개호자가 시설, 재택, 거주에 관계없이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및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실시하면 될 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
- 지역포괄케어연구회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「필요로 하는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, 생활상의 안전, 안심,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와 개호뿐만이 아닌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 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(일상생활권역)에서 적절히 제공될수 있는 지역에서의 체제」로 정의
- 개호예방 및 생활지원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지원되며, 양분을 풍부하게 가진 흙이 되어, 앞으로 그려진 전문직이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존엄있는 개인의 삶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

○ 지역포괄지원센터 개요

- 설치주체:시정촌
- 보건사, 사회복지사, 주임개호지원전문원 등을 배치
- 2014년 현재 4,557곳
- 직영: 27.2%, 위탁 72.2% 위탁비율이 계속해서 증가(행정기관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식도 포함)

○ 지역포괄지원센터 업무

-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의 구축
- 종합상담 지원 업무
- 권리 옹호 업무
(성년후견제도의 활용 촉진, 고령자 학대에 대한 대응)
-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케어 매니지먼트 지원 업무



○ (관련정책 동향 1) 일본재흥전략 2016

-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는 세계최첨단 건강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「공적보험외 서비스의 활용 촉진」을 제시. 공적보험외 서비스가 생활습관 등의 개선 등의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공적보험외의 개호예방 및 생활지원
-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일환으로서 활용되도록 의료 및 개호관계자와 민간사업자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 구축에 대해 명기

- (관련정책 동향 2) 차세대헬스케어산업협의회
 - 차세대헬스케어산업협의회는 일본재흥전략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에 「건강 및 의료전략추진본부」 산하에 설치되어 내각관방, 후생노동성, 농림수산성, 경제산업성, 관광청, 스포츠청 등의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과제와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음.
 - 또한 2016년 4월에 당 협의회에서 공표한 「액션 플랜 2016」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정책의 기본이념은 누구나가 인생을 최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, 이에 공헌하는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에 연결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음.

4. 커뮤니티케어 식당, 카페 와다훗또

-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세끼 식사 서비스와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(와다훗또카페, 和田ほっとカフェ, 분쿄구사회복지협의회, 文京區社會福祉協議會)
- 커뮤니티 식당 운영과 안부확인서비스
 - 이용자가 커뮤니티 식당(주 2회 운영)에 가서 다른 지역주민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며 안부확인
- 균형적인 식사와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노인, 장애인의 건강수명 증가 가능, 지속적인 자택생활 가능환경 조성

5. 사회복지법인 분쿄구 사회복지협의회

- 일본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약 1,920개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인, 장애인의 권리옹호사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지원을 실시
 - 각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일상생활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
 -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된 주부 헬퍼를 이용해 이용자가 필요

로 할 때 이용자의 자택에 방문(이용자는 시간당 서비스 이용 비용 지불)

□ 서비스 내용

- (일상생활 자립지원) 가사 보조(조리하기, 쓰레기 버리기, 식사 차리기 등), 외출동행, 주택관리(전구교체, 상하수도관 수리 등), 쇼핑동행, 말벗, 긴급상황 발생 시 보조, 진료 동행 등
- (복지서비스 이용지원과 금전관리 방법 지원) 복지서비스 이용과 가계수지상황 조언 등

□ (성년후견제도와 차이) 본 사업은 노인, 장애인과의 계약에 근거해 일상생활자립지원과 복지서비스 이용지원, 일상적인 금전 관리 등 지역거주에 필요한 핵심서비스를 지원

-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나 시설 입퇴소, 법률행위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지원을 실시

□ (성과) 연속적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과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장

- 욕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공적돌봄서비스를 보충하는 역할 수행
- 노인,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와 등급악화 방지